부처님 45년 삶에 관한 이야기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⑳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부처님에 관한 전생과 현생, 그리고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은 너무 많은데 정작 부처님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제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성도하신 후 45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하신 부처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경전이 바로 〈불본행집경〉이다.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 율장을 중심으로 수집되다보니 너무나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아마도 부처님을 위인전 스타일로 삶에 집중해서 쓸 것인지, 그의 사상을 중심으로 문학적으로 쓸 것인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엄청난 양을 수집하고, 그것을 다시 잘 섞어서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한 편의 대하드라마가 탄생되었다. 이 위대한 편집자는 바로 북인도 출신인 사나굴다(jnanagupta) 스님이다. 27살에 제자 10여 명과 함께 중국에 들어와 3년간 머물다 주나라 무제의 폐불을 피해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수(隋)나라 때 초청을 받고 들어와 역경불사를 장장 15년간 주도하였다.

〈불본행집경〉 원전은 아직 발견되진 않았으나 사나굴다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직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전의 형태를 예상할 수 있다.

〈불본행집경〉은 전체 3부 6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생부 5권, 금생부 32권, 전법기 23권이다. 전생부는 과거부처님으로 시작해 석가모니불까지의 계보와 주로 전생담이다. 보리심을 발하여 도솔천에 올라갔다가 다시 마야부인의 품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담겨져 있다.

금생부는 현세에 태어나 학습하고, 결혼하며 왕자로 살았던 시기와 출가하여 스승을 찾아다니며 공부했던 시기와 깨달음을 성취하고 난 뒤에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전하던 시기다. 전법기는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과의 이야기와 그들의 전생과 출가의 인연 이야기들로 구성되었다.

어느 날 목련존자가 아침 일찍 탁발을 나가려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너무 이른 아침이라 걸식하기엔 너무 이르구나, 아무래도 이럴 땐 정거천에 가는 게 좋겠다."

목련존자가 정거천에 들자마자 수많은 정거천인들이 노래 부르며 목련존자를 맞이하러 갔다.

백천만겁 동안에 있어서
부지런히 보리도를 구하셨네.
많은 세월 지내오면서
중생들 가운데 큰 보배로세.
세상에서 가장 보기 어려운 분들은
오직 불세존 오직 부처님 세존 뿐이더라.

목련존자는 이 노래를 듣자마자 온 몸이 떨리고 털이 다 일어설 정도였다. 그리고 바로 부처님께로 돌아와 여쭈었다.

"왜 그들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는 것을 그렇게 힘든 것이라 하는지요."

이는 부처님과의 인연이 큰 공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근은 심고, 보리심을 구하기 위해 부처님은 수없이 많은 세월동안 많은 여래와 세존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공경 공양한 것이다. 그로 인해 부처님이 되시고 지금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찾아오는 이들에게 부처님도 그와 같이 했음을 인지해야 한다. 공경공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가섭존자 일화서도 나온다. 가섭존자는 아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자라면서 출가하기를 원했다. 부모가 반대하여 할 수 없이 필발라야나와 결혼은 하였지만 출가하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그로부터 15년간 이들 부부는 서로 접촉조차 하지 않고 살았다. 어느 날 필발라야나의 아버지가 별세하자 이들 부부는 바로 출가하였다. 가섭존자는 어느 날 부처님을 거리에서 만났다.

'마치 금상의 광체가 빛나듯하여 그 마음에 일체지를 내어 합장하고 크게 기뻐 세존을 뵈었네.'

가섭존자는 석가모니불에게 출가하여 비구 가섭이 되었고, 부인은 엉뚱한 곳에 출가하여 진정한 공부와는 먼 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다.

〈서울 반야사 주지〉

정법과 사법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⑲ 금강경 26분

2500여 년 전 인도에서 태어난 석가여래의 가르침이 오랜 세월 걸쳐 세계 여러 나라에 전파되면서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형태의 불법으로 변형 전개됐다. 이렇게 변형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중에서 어떤 가르침이 사람들을 밝게 하는 정법인지, 어떤 불법이 삿된 가르침인지 보통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부처님의 밝은 정법의 가르침을 받아 행복해지며 밝아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는 하나 정법이 아닌 즉 사법의 가르침을 받들고 행하므로 불행하고 패가망신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그런데 과연 어떤 가르침이 정법이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지혜롭게 하는 가르침일까?

부처님께서는 정법과 사법에 관한 구분을 금강경 26분에서 실감나게 규명했다.

약이색견아(若以色見我)
이음성구아(以音聲求我)
시인행사도(是人行邪道)
불능견여래(不能見如來)

만일 겉으로 드러난 모양으로 또 겉으로 들리는 명성으로 부처님을 판단하는 사람은 사도(邪道)를 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므로 정도(正道)를 모른다.

겉으로 드러난 모양이란 실은 자신의 마음속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상이며, 명성이란 자신의 선입견이 만든 허명(虛名)이다.

이렇게 모양이나 명성으로써 부처님을 판단하고, 현실을 진단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분별심이나 선입견이 현실을 만든다는 일체유심조의 진리, 또 그 분별심아란 것이 착각이요 본래 없는 것이라는 공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사람은 올바른 지혜가 없기에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이다.

정법에 관해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었나? 금강경에 실무유법(實無有法) 명위보살(名爲菩薩)이라는 말씀을 하시었다. 즉 실무유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보살이요 곧 정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인데 다시 말해 일체유심조의 진리나 공의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정법을 행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이끄는 단체는 정법단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무유법은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법과 사법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보자. 보통 성직자들(정법을 행하지 못하고 사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난제를 호소하며 난해한 질문을 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난제에 대한 정답을 제시한다.

자신이 난제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반드시 올바르다 할 수 없기에 난제해결에 결정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일체유심조와 공을 깨친 성직자들(즉 지혜로운 성직자들, 정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난제를 호소할 때 호소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부처님과 똑같이 난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음을 일깨워 주고 이를 발견하게끔 도와 줄 뿐이다. 자신의 마음 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의 위력은 어떤 절체절명의 난제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일체유심조나 공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설법은 정법이 되지 못하는 것이며, 이들이 이끄는 단체 역시 정법행하지 못하는 단체 즉 사도를 행하는 단체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경(佛經) 속의 똑같은 말씀이라도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설명하면 사법(邪法)이 되는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설(說)하면 상대의 지혜를 밝게 하는 정법(正法)이 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회광반조 '이 뭣고'

참선(參禪)을 흔히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이라고 한다. "교학에 의지하지 않고 곧바로 마음의 본성을 직관해 부처를 이루게 한다"는 의미이다.

견지망월(見指忘月)이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않고 손가락만 보고 달을 봤다고 하듯이, 내안의 부처를 외면한채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겉모양에 집착해 밖으로 허상을 찾아 해매는 중생들의 마음을 안으로 되돌려 깨침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간화선 '이 뭣고' 이다. 화두는 관(觀)하는 것이지 견(見)하는 것이 아니다. 견은 육안과 업식으로 보는 것이고, 관은 심안으로 꿰뚫어 보는 것이다.

관은 한 면(面)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연따라 생겨나는 것을 보며, 기울어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도(中道)를 보는 것이며, 절대 평등을 보는 것이다. 이 단계가 지나면 '이 뭣고'의 이것이 바깥서 주인 자리로 환지본처 즉 회광반조(廻光返照)하게 된다.

초점을 '무엇'이 아닌 '이것'에 맞추어야 진정한 실상과 주인 자리가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실천 수행이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눈을 보지 못하듯이 마음을 찾는 내가 있고 찾는 대상이 따로 분리된 상태가 아니고, 주(主)와 객(客)이 분리되기 이전의 세계이다.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 화두는 그 말이 나오기 전, 조주 스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상태를 화두라고 한다. '뜰앞의 잣나무'라는 소리가 나오기 이전 조사스님의 그 뜻이 화두인 것이다. 마음의 눈을 뜨는 방법이 의정이고 의심이다. 화두는 그 뜻이 나와 벽이 허물어진 상태를 보여 준 것이니까, 내가 찾을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다. 찾으려 하는 자와 찾아야 할 대상을 둘로 나누면 그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대체 무엇인고?

"생멸심(生滅心)이나 진여심(眞如心)은 두 개로 나눠지지 않는 모두 한 마음인 중도이지만 양자는 서로 별개처럼 작용한다. 그러나 생멸이면 진여가 아니고 진여이면 생멸이 없다"

'이 뭣고' 화두는 이런 회광반조를 발생시키는 발문이 된다. 본래 자기 성품인 고요함과 신령스런 앎인 공적영지(空寂靈智)를 한순간에 자각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화두는 반조(返照)되어야 한다. 반조는 습기를 제거해 진여로서 영성을 체득하게 만든다. '이 뭣고' 할 때 '이' 하고 숨을 길게 내쉴 때 심안(心眼)으로 '이(是)'를 비추어 보는데, 이것이 회광반조이다.

망상(妄想)의 눈으로 보면 보는 것이 상(相)을 따라 좇아 가지만, 심안으로 관하게 되면 관 하는 사람은 사라져 버리고 진여불성(眞如佛性)만이 홀로 훤히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견성성불(見性成佛)인 것이다. 그러나 내안의 불성을 자각은 했지만 오랜 세월 익혀온 습기(習氣)를 단박에 없앨 수는 없기에, 깨달음에 의지해 수행을 꾸준히 하여 성스런 성태(聖胎)를 길러야 하는데 이것을 점수(漸修)라 한다. 이것을 보조국사는 회광반조로 설명한다.

〈기신론〉에 "생멸심(生滅心)이나 진여심(眞如心)은 두 개로 나눠지지 않는 모두 한 마음(一心)인 중도이지만 양자는 서로 별개처럼 작용한다. 그러나 생멸이면 진여가 아니고 진여이면 생멸이 없다"고 하였다.

우리들은 '이 뭣고'로 신령한 앎(반야지혜)를 증득하고, 생활속에서 바로 굴려쓰면 사업, 학업, 건강 등이 '해주십시오' 하고 빌지 않아도 자동적(自動的)으로 성취(成就)되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오직 선택받은 스님께만 행운이 돌아갑니다... 지금 바로 예약 하십시오!!
법당의 구형 음향설비를 「300만원대」의
최고급 엠프 설비로 160만원에 보시!!
(제공 : 800W(USB)엠프+450W 스피커2개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사용중인 엠프 스피커는 회수함!)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법당 엠프설치비 가격표
•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헤드셋 1조)
C형 : 158만원 (B형 + CD 1대)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이스)
•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800W 믹싱포함 일절)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고급헤드셋 포함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초고성능 마이크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